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What has been going to clearing-operation the
Somalian pirates ?



글 | 李 彩 雨
(Lee, Chae Woo)

조선기술사
(주)세계이앤씨 부사장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E-mail: cwlee@segeenc.com

Somalian pirates with the onset of civil war in the early 1990s have cau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The cost of shipping is increasing and food-aid shipment is hindered by these ships are needed military escort. Since 2008, international society has deployed multinational naval vessel in the nearby Somalian sea and strengthen multinaional naval operations to minimize damages from piracy.

1. 서언

소말리아 해적은 1990년대 초에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해적으로 국제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05년부터 국제해사기구와 세계식량계획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의 해적으로 말미아마 해운 비용이 오르고 식량 원조 조달이 방해받고 있다. 세계 식량계획의 90%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데, 이런 배는 군사 호위가 필요하다. 케냐 외무부의 보도에 의하면 소말리아 해적은 2008년 11월까지 미화 1억 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2008년 현재, 다국적 연합군인 제150 합동임무부대가 아덴만의 해상감시지역을 설정하고 소말리아 해적과 싸우고 있다. 해적의 위협

이 커지면서 인도에도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나라의 무역로는 대부분 아덴만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해군은 2008년 10월 23일 이 지역에 전함을 파견하였다. 2008년 9월에 러시아도 해적에 대항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8월 10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1838을 채택하여 이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에 해적 활동을 저지할 군사 지원(군함과 항공기의 파견)을 요청했다. 국제해사기구의 제101차 회의에서 인도는 단일 지휘체계를 갖춘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항할 것을 요구했으며, 1992년부터 소말리아에 대한 완전한 무기 금수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2008년 11월 소말리아 해적은 아덴만의 바깥 해역에서 케냐의 몸바사항으

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도 납치하기 시작했다. 2008년 현재, 국제사회는 해적질을 막기 위하여 다국적 연합함대를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 보내 연합 해군 작전을 펼치고 있다.

2. 소말리아 해적의 역사

소말리아의 정치적 혼돈과 중앙 정부의 통제력 상실 때문에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는 소말리아 지역에서 1990년 초반부터 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때문에 소말리아 해역에는 불법 어선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해적들이 그 불법 어선들로부터 자기 해역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가와 군벌이 개입한 이후에 그 성격이 점차 변해갔다.

2006년에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연맹이 일어난 시기에는 해적행위가 잠시 주춤했으나, 2006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이슬람 군벌인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연맹을 공격한 이후에 해적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에티오피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으며 일부 해적들은 원래 어부로, 외국 선박들의 위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해적들의 납치는 거의 경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인질들을 해치는 일은 드문 일인데 2011년 2월 18일 미국 국적 요트 '퀘스트' 호의 승무원 4명이 해적에 의해 피살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3. 해적의 특성

해적은 20세에서 35세 정도로 소말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푼틀란드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최소한 5개 갱집단이 있고 각각 1,000명 정도의 무장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BC 의 보고에 따르면 해적은 세 부류로 나뉜다.

- (1) 지역 어부 : 인근의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뇌부를 이룬다.
- (2) 전직 군인 : 소말리아 내전에서 싸웠던 이들은 노동력과 전투력을 공급한다.
- (3) 기술자 : GPS 시스템등을 조작할 수 있다.

4.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 진행현황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8년 8월 외국군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는 결의안 1838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적의 퇴치를 위해 외국의 군대가 소말리아의 영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UN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연락그룹(CGPCS)을 구성해 UN차원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해적의 퇴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소말리아 근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타이완 등 외국의 어선들이 저인망 어업을 하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많은 해적들이 수산물을 약탈하는 외국의 불법어선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해적들을 영웅으로 보는 여론도 있다.

선박을 만드는 한국의 삼성중공업 조선소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해 해적을 퇴치하는 해적퇴치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항해 정보 분석을 통해 해적선을 판별하고, 고화질의 나이트 비전(Night Vision)을 이용한 국적 감시, 조타실 등 안전한 장소에서 CCTV를 통해 원격제어로 물대포를 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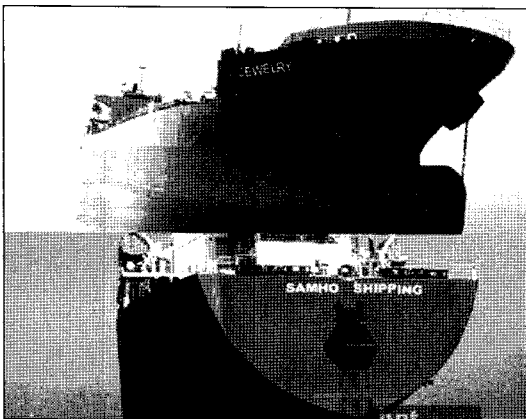
4.1 연합 해군(Combined Task Force-150)

* NATO : 캐나다 해군, 덴마크 해군, 독일 해군, 그리스 해군, 이탈리아 해군, 네덜란드 해군, 스페인 해군, 스페인 공군, 터키 해군, 영국 해군, 미국 해군

* 기타 국가 : 인도 해군, 말레이시아 해군, 러시아 해군, 스웨덴 해군,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

4.2 대한민국 해군의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해적의 단속을 위해 대한민국 해군 사상 처음으로 장기간의 원거리 전투 순찰임무를 목적으로 청해부대를 파병했으며, 동시에 미국 주도의 항구적 자유 작전 - 아프리카의 뿔에 참가하게 되었다. 청해부대는 수중 폭파와 대테러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해군 특수전 여단(UDT/SEAL)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선박은 매일 10여척 정도가 이 해역을 지나가고 있다.



〈그림 1〉 전장 145.5m, 화물적재 용량 19,000톤급 삼호해운 소속의 화학물질 운반선

2011년 1월 21일에는 삼호해운 소속의 화학물질 운반선 삼호 주얼리호를 군사작전으로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해 냈으며, 총상을 입어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석해군 선장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보도되었다.



〈그림 2〉 한국해군의 삼호 주얼리호 구출작전 시간별 상황도

그동안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에서는 2월 2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체포해온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구속시켰다.

4.3 일본 해상 자위대의 파병

일본 의회는 '해적행위 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정부는 2001년 3월에 창설된 해상자위대 특별경비대를 최초로 출동시키기로 결정하고, 한국이 DDH-976 문무대왕함을 파견한 다음날인 2009년 3월 14일 히로시마현 구레 기지의 해상자위대 소속의 DD-106 사미다레, DD-113 사자나미 2척의 호위함을 소말리아에 파병했다.

〈원고접수일 2011년 1월 27일(목)〉